貿易學會誌 제41권 제4호
2016년 8월 pp.245~267

논문접수일 2016. 07. 20
심사완료일 2016. 08. 18
게재확정일 2016. 08. 19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방향*

Global Value Chains Perspective of Korea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and Policy Direction

정 무 섭** Moo-Sup Jung
양 영 수*** Young-Soo Yang
김 대 영**** Dae-Young Kim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분석 모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의 현황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50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동시에 늘어나는 전 세계 FDI와 수출입을 동시에 설명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지나치게 무역위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주요국에 비해 20~30여년 뒤쳐져 있는 해외직접투자(OFDI) 수준을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강사, 교신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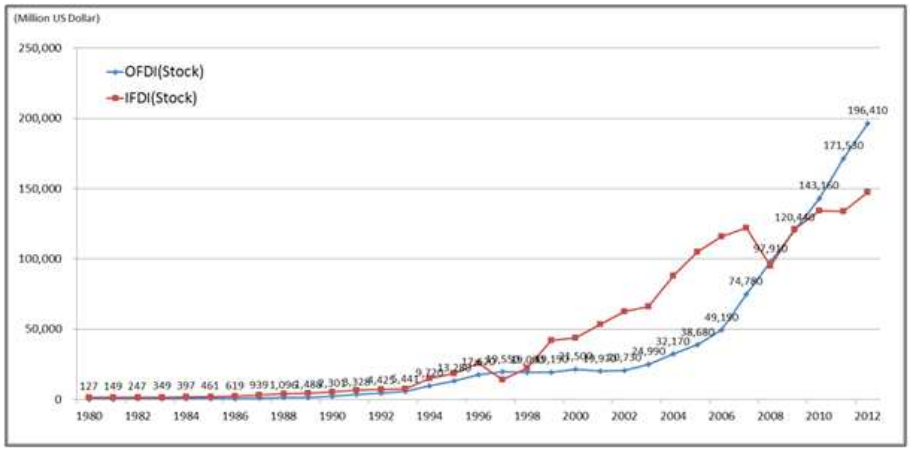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1인당 GDP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글로벌가치사슬,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무역, 국제화

Ⅰ. 서 론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를 통한 국제화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누적 OFDI 규모는 1,9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1> 참조). 특히, 2007년에서 2012년까지 6년간의 OFDI 규모는 1,296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 규모에 비해 약 2.5배 높은 금액이다.[1]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한국의 누적 OFDI가 한국으로 투자된 IFDI 규모를 앞질렀다.

<그림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외국인직접투자(IFDI) 추이



자료: UnctadStat DB

이러한 한국기업의 OFDI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몇몇 국내 연구보고서 및 언론들은 국내의 산업공동화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기업의 OFDI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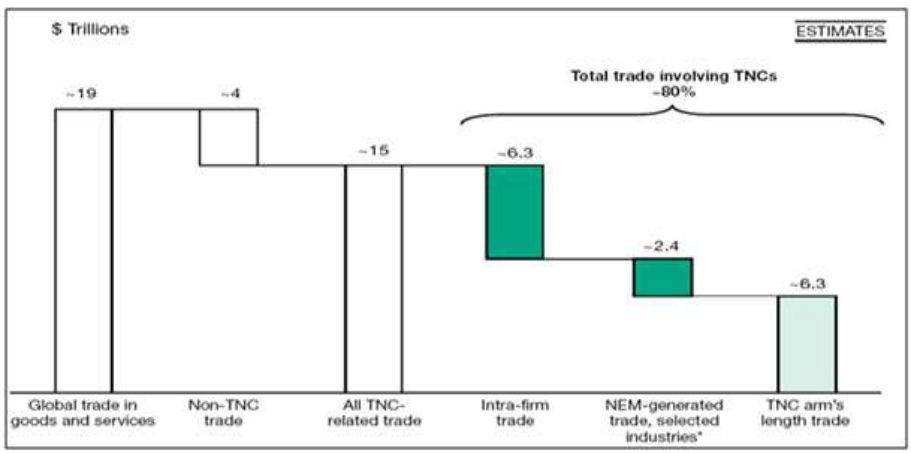
1)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IFDI) 금액은 59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다. 특히,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생산비중이 2005년 6.7%에서 2010년 16.7%로 확대되면서 국내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국내 고용 및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이은석 외, 2012; 조선일보, 2012: FT, 2012). 반면, 이와 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존재한다. 현혜정 외(2010)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해당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국내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고용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의 증대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최근 한국기업의 OFDI 확대는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해 기업가치사슬의 국제적 재배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기업의 OFDI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국내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기업의 OFDI에 기인한 국내경제의 발전 단계 및 방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동시에 늘어나는 전 세계 FDI와 수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무역과 FDI를 별도로 이해하는 현재의 이론적 관점이나 기업 혹은 제품 위주로 해외진출을 설명하는 국제경영 분석모델로는 이러한 거시적인 국제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2> 전 세계의 무역 중 다국적기업(TNC)의 GVC 부문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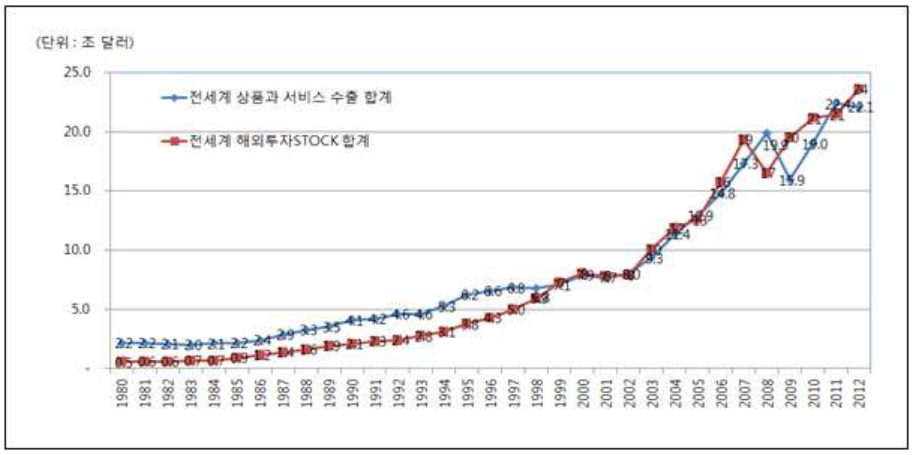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DB

최근 UNCTAD(2013)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액의 80%가 다국적기업의 GV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내무역(intra-firm trade)이 6.3조 달러(33%), 계약생산 등 MEN(Non-Equity Mode) 무역이 2.4조 달러(12%),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기업 간 무역이 6.3조 달러(33%)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또한 1990년대 초기에는 전 세계 FDI 총량이 무역량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GVC 확산에 따른 FDI와 무역량이 함께 급증하였다. <그림 3>은 전 세계 FDI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전 세계 무역의 60%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전 세계 무역의 증가가 다국적기업의 FDI 확대에 따른 GVC 확산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UNCTAD, 2013). 그리고 2012년 기준 전 세계 OFDI 누적액은 24조 달러로 제품과 서비스 무역액 22조 달러를 상회한다. 이는 GVC 확산에 따른 OFDI 증가가 무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FDI와 무역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가치사슬의 국제적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FDI와 무역은 유기적 관계성에 기초한다.

<그림 3> 전 세계 FDI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추이



자료: UnctadStat DB

한편, 전 세계 FDI 및 무역이나 GDP에 대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의 증가율이 무역과 GDP 성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해외투자와 무역의 성장률 격차는 더욱 커진 상황으로 투자의 견인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를 중심으로 무역을 동시에 분석하는 GVC 관점에서 한국의 OFDI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표 1> 전 세계 FDI와 수출 및 GDP의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성장률(CAGR)	
	2000-2012년	2005-2012년
전세계 상품수출	9.10%	8.30%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8.90%	8.00%
전세계 해외투자(stock)	9.40%	9.40%
전세계 GDP	6.90%	6.70%

주: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연평균복리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UnctadStat DB

GVC 관점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박성배 외, 2008; 최남석, 2013; 이준호 외, 2014)들이 일부 존재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비즈니스 차원 및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 차원의 연구로서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해외직접투자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반에 걸친 무역과 FDI에 대한 GVC 관점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발전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FDI와 무역을 중심으로 국제화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내경제의 변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FDI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FDI 수준을 GVC관점에서 전 세계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둘째, FDI 수준과 국내파급효과의 대표변수인 1인당 GDP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하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FDI 관련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GVC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정리한다. 제3장은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FDI 적정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Ⅱ. 선행 연구

UNCTAD와 WTO, 그리고 OECD 등의 전 세계 경제관련 기구들은 최근 GVC 관점에서 전 세계 무역과 투자의 확대, 경제성장 그리고 고용 확대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UNCTAD(2013)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 분석과 다국적 기업분석을 통해 GVC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UNCTAD, WTO and OECD(2013)은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 자료로서 향후 세계 경제성장의 방향을 무역과 투자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OECD, WTO and WB(2014)에서는 GVC에 관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서 박성배 외(2008)는 R&D, 제도, 마케팅 등의 기업 가치사슬 활동을 분할하여 글로벌 관점에서의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GVC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문휘창·박지민(2013)은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과 협력회사의 베트남 진출로 인한 기업경쟁력효과와 국내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여 해외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삼성전자 휴대폰의 매출 증가는 GVC의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부문의 활동이 커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론 해당 협력업체들의 고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조립 및 제조' 부문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국내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최남석(2013)은 2000년부터 2011년 기간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국내고용자료와 OECD, WTO의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대기업의 GVC 확장이 협력업체의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 국내 고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대기업의 GVC 확장으로 인해 국내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증대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Lee and Jung(2015)은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해외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디자인, 기술직 등 고부가 영역은 국내에 유지되도록 하여 기술공동화나 기술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허브확대를 위한 해외투자–국내투자의 동시확대를 추구하는 양면적 정책을 제안하였다.

GVC의 확산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GVC 편입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준호(2007)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GVC 편입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준호 외(2014)는 사례연구를 통해, 전 세계 GVC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GVC 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영역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GVC 관점의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GVC 관점에서 해외투자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대한 GVC 관점에서의 분석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GVC 관점에서 한국의 무역과 해외투자 그리고 국내 경제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FDI 연구들은 대부분 정태적 분석 틀에 기초함으로써 정책 및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VC 관점의 동태적 분석 방법을 기초로 이들 요소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모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Ⅲ.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GVC 관점을 기반으로 거시적으로 무역과 해외투자를 동시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대비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OFDI/수출”과 수입 대비 국내로의 외국인직접투자 변수인 “IFDI/수입”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본 변수의 수준은 각 국가의 GVC 확산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VC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무역규모와 FDI 규모가 동시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참조). 따라서 “OFDI/수출”과 “IFDI/수입”은 기업 가치사슬의 국제화 정도, 즉 GVC 확산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본 연구는 “수·출입/해외투자” 수준과 GDP 규모 간 관계성을 전 세계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 GVC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 및 수준(적정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스위스 등 한국과 경쟁관계 또는 벤치마킹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 한국 간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1982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5년 단위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한국의 국제화 수준(적정성)을 비교대상 국가들을 기준으로 객관화하여 보여주고자 하며 또한 국제화 수준의 발전경로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GVC 관점에서의 국제화 수준이 해당 국가의 생산성 및 선진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모형은 “해외투자/수출입” 변수와 “1인당 GDP”를 대리변수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화 수준과 생산성 및 선진화 수준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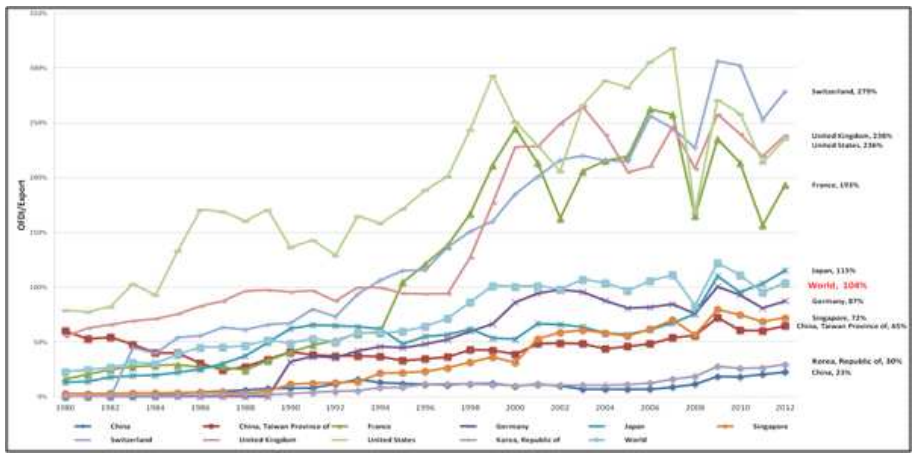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해외투자 적정성 평가

GVC 전략 관점에서는 해외투자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투자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과 비교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정도를 국제비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대비 OFDI의 비중은 GVC 확산의 관점에서 볼 때, 해외투자의 적정성을 전 세계 국가들 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의 수출대비 OFDI 비중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한국과 전 세계 주요국 OFDI/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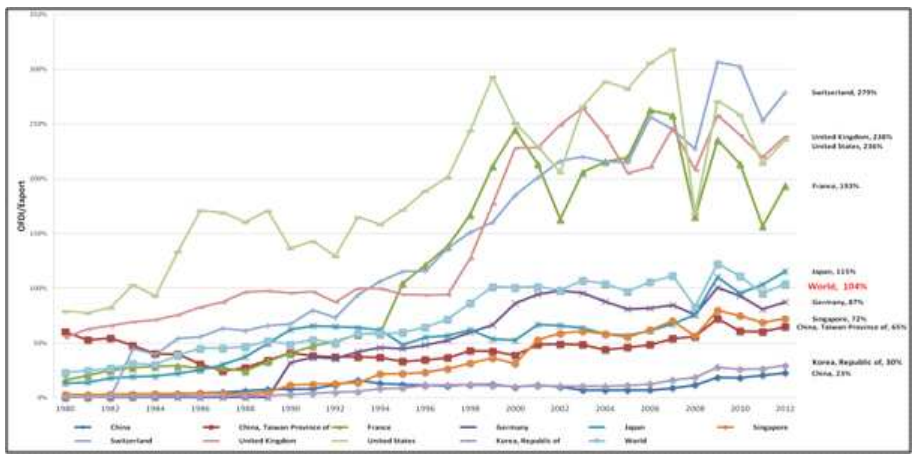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DB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대비 OFDI 비중은 30%로 나타났다. 반면 전 세계는 수출대비 OFDI 비중이 104%로 한국 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OFDI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 세계 평균 대비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OFDI/

수출 비중은 중국과 비슷한 개도국 수준으로 경쟁국 대비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2년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 대비 IFDI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대비 IFDI 비중은 24%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전 세계 평균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대비 IFDI 비중은 104%로 한국 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은 OFDI 뿐만 아니라 IFDI 규모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한국과 전 세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OFDI./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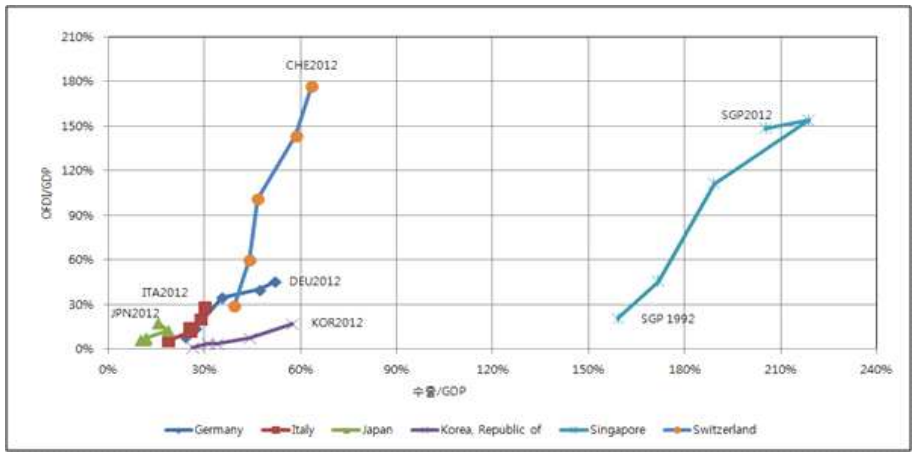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DB

특히 한국과 전 세계 주요국 수출 대비 OFDI 비중의 추이를 제조업 중심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일본, 독일, 대만 등 제조 강국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는 한국을 포함한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수출대비 OFDI 비중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중국(23%)과 함께 제조업 중심 국가들 사이에서 수출대비 OFDI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각 국의 생산성 및 시장 크기 혹은 선진화를 대리하는 변수인 GDP 대비 OFDI 비중과 수출대비 GDP 비중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업 국가들에 대해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무역과 투자의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1>은 한국과 주요 제조업 국가의 GDP 대비 OFDI 비중과 GDP 대비 수출비중에 대한 시계열적 흐름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6-2>는 <그림 6-1>을 토대로 한국과 제조분야에서 경쟁관계에 가까운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의 시계열적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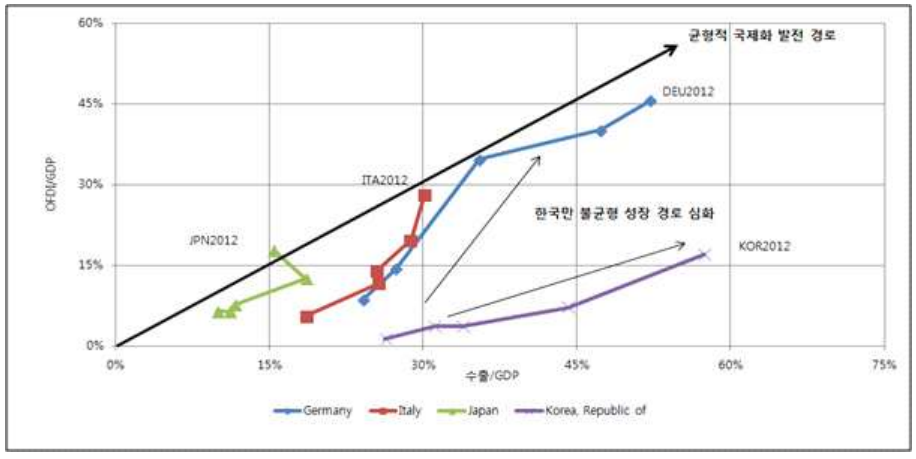
경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GDP 대비 OFDI가 GDP 대비 수출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1> 한국과 주요 제조업 국가의 OFDI/GDP와 수출/GDP 관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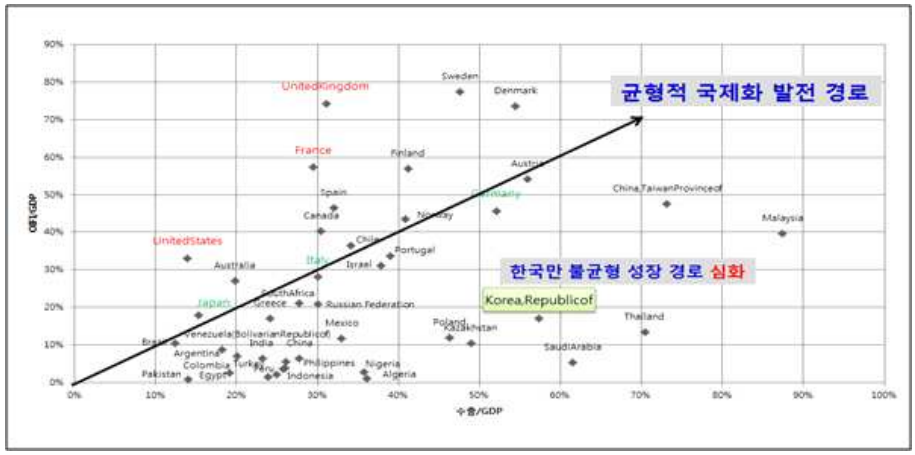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DB

<그림 6-2> 한국과 주요 제조업 국가의 OFDI/GDP와 수출/GDP 간 발전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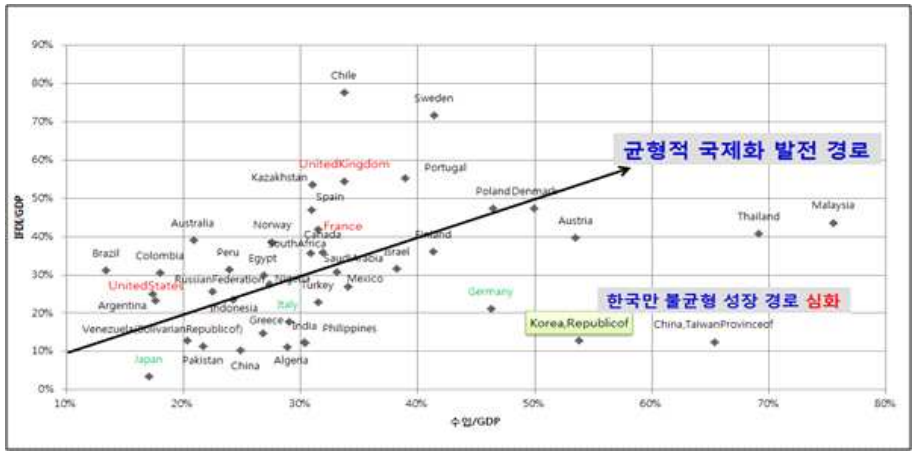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DB

<그림 7> 한국과 주요국들의 OFDI/GDP와 수출/GDP 간 관계성(2012년 기준)



주: Netherlands, Switzerland, Iran, Belgium, United Arab Emirates, Singapore, Hongkong 제외
자료: UnctadStat DB

<그림 8> 한국과 주요국들의 IFDI/GDP와 수출/GDP 간 관계성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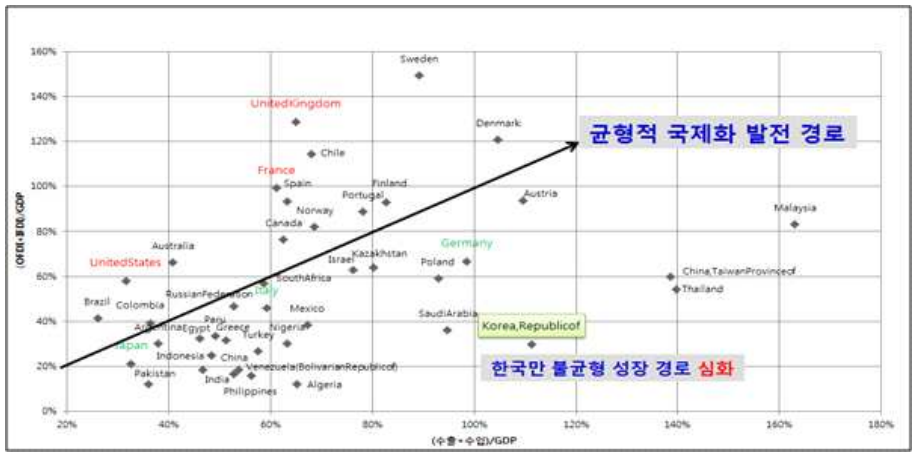
주: Netherlands, Switzerland, Iran, Belgium, United Arab Emirates, Singapore, Hongkong 제외
자료: UnctadStat DB

그리고 GDP 대비 OFDI와 GDP대비 수출비중에 대한 2012년 기준 횡단면 분석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외투자보다는 수출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GDP대비 IFDI와 GDP 대비 수출 비중 간 관계성과 GDP대비 FDI(OFDI+IFDI)와 GDP대비 무역액(수출+수입)의 관계성에서도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내로의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화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균형적 국제화 발전경로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과 그림 9 참조).

<그림 9> 한국과 주요국들의 FDI/GDP와 무역/GDP 간 관계성 (2012년 기준)



주: Netherlands, Switzerland, Iran, Belgium, United Arab Emirates, Singapore, Hongkong 제외
자료: UnctadStat DB

2. 수출대비 FDI가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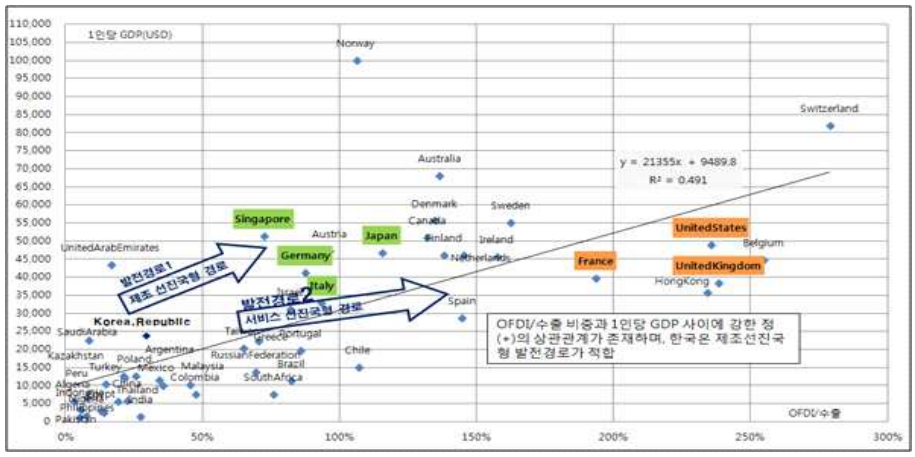
GVC 수준에 따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3개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GDP상위 50개국의 수출대비 OFDI비중과 1인당 GDP 간 국제비교를 통해 GVC 관점에서의 해외투자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은 GVC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DP 상위 50개국의 수입대비 IFDI와 1인당 GDP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출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1인당 GDP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 간 동태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GVC 관점에서의 균형적 발전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GDP 상위 50개국의 수출 대비 OFDI비중과 1인당 GDP간 국제비교분석

해외투자가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선 수출 대비 OFDI 비중이 0-50% 사이의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1인당 GDP가 3만불을 상회하는 국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선진국 편입을 위해 경쟁하거나 추격해야 할 독일, 이태리, 싱가포르 등은 수출대비 OFDI 비중이 70%-1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GDP 상위 50개국의 OFDI/수출 비중과 1인당 GDP 간 관계성



한편, 수출 대비 OFDI 비중이 100%가 넘는 국가는 칠레,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1인당 GDP 규모가 4만5천불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국, 홍콩 등의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강국과 세계 최상위 부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는 수출 대비 OFDI가 20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은 GDP 상위 50개국의 수출대비 OFDI와 1인당 GDP 간 관계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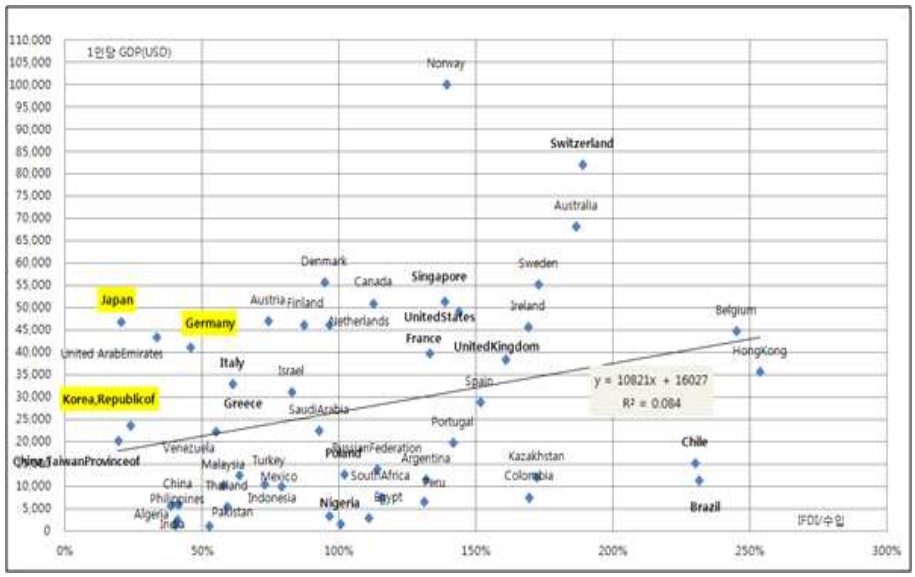
2) GDP 상위 50개국의 수입 대비 IFDI비중과 1인당 GDP간 국제비교분석

GDP 상위 50개 국가의 수입 대비 IFDI 비중과 1인당 GDP 간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의 관계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무역과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FDI 이익은 OFDI 뿐만 아니라 IFDI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은 GDP 상위 50개국의 수입 대비 IFDI 비중과 1인당 GDP 간 관계성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입 대비 IFDI는 수출 대비 OFDI 보다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GVC 관점에서 국제화에 따른 1인당 GDP 간 관계성의 기울기는 수출 대비 OFDI가 수입 대비 IFDI 보다 정(+)관계성으로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과 그림 11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검증되

었는데, <표 2>는 수출 대비 OFDI와 수입 대비 OFDI의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GDP 상위 50개국의 IFDI/수입 비중과 1인당 GDP 간 관계성



<표 2> 실증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1인당 GDP	Y절편	9,489.808	2.63	0.011
	(OFDI/수출)	21,354.93	6.73	0.000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1인당 GDP	Y절편	16,026.96	2.45	0.017
	(IFDI/수입)	108,721.22	2.07	0.043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 통계량	p-값
1인당 GDP	Y절편	14,370.08	2.99	0.004
	(OFDI/수출)	24,827.23	6.39	0.000
	(IFDI/수입)	-7,187.79	-1.51	0.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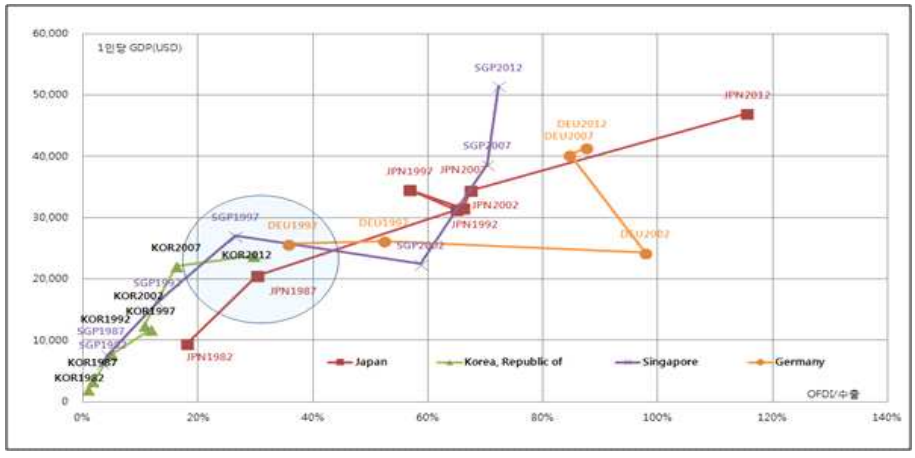
3개의 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OFDI와 IFDI 1인당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나 영향력에 대한 탄력성은 수출 대비 OFDI가 보다 1인당 GDP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수입 대비 IFDI와 수출 대비 OFDI 전략 중 1인당 GDP 성장, 즉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 세계 GDP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 대비 OFDI 확대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수출 대비 OFDI 비중이 1인당 GDP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동태적 분석

수출 대비 OFDI 비중과 1인당 GDP 규모 간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30년 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UNCTAD에서 제공하는 1982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은 주요 선진국들을 제조선진국형 경로, 서비스선진국형 경로로 나누고 이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조선진국형 국가들의 수출 대비 OFDI와 1인당 GDP 추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꾸준한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2012년 상황은 일본의 1992년과 비슷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독일의 1992년의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제조선진국의 OFDI/수출비중과 1인당 GDP간 동태적분석
- 제조선진국형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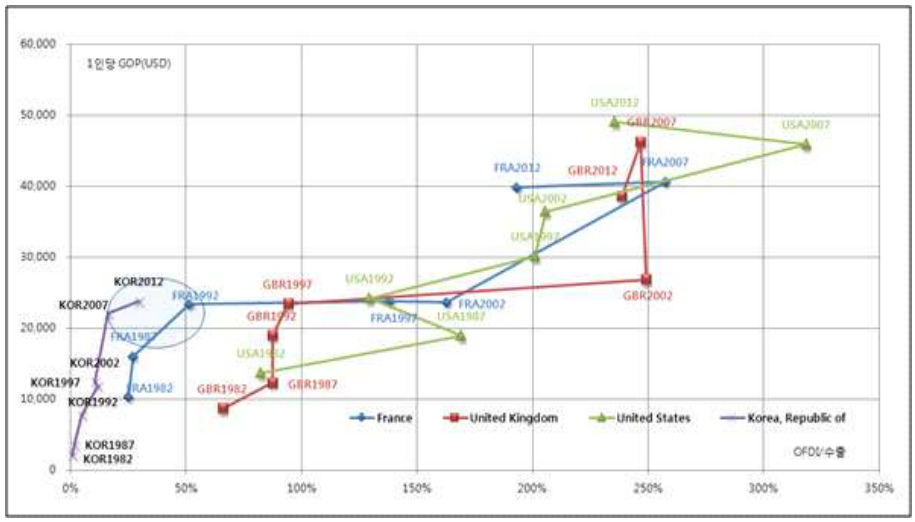


또한 한국의 발전 모델로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의 비교분석에서는 1997년의 싱가포르 수준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990년대 1인당 GDP가 2만불 수준에서 OFDI의 증가를 통해 2000년대 이후에는 1인당 GDP가 3

만불을 넘어서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현 OFDI/수출 비중은 다른 제조선진국에 비해 20-30년 가량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는 주요국의 수출 대비 OFDI 비중과 1인당 GDP 간 동태적 추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제조선진국형 경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의 국제화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특히 스위스는 강대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산악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선진국형 국가들의 수출 대비 OFDI 비중과 1인당 GDP 간 동태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선진국형 국가들은 제조선진국형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출 대비 OFDI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서비스선진국의 OFDI/수출 비중과 1인당 GDP 간 동태적 추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비스선진국도 제조선진국들의 모습과 같이 OFDI/수출 비중의 확대와 함께 1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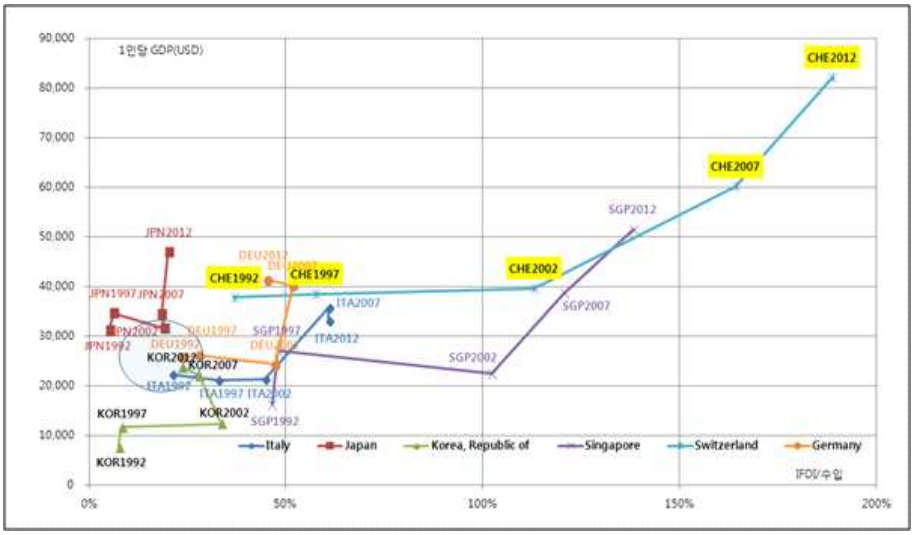
<그림 13> 서비스선진국의 OFDI/수출비중과 1인당 GDP간 동태적분석
- 서비스선진국형경로 -



한편, 외국인투자유치 수준과 1인당 GDP 간 동태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선진국형 국가들의 수입 대비 IFDI 비중과 1인당 GDP 간에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의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4>는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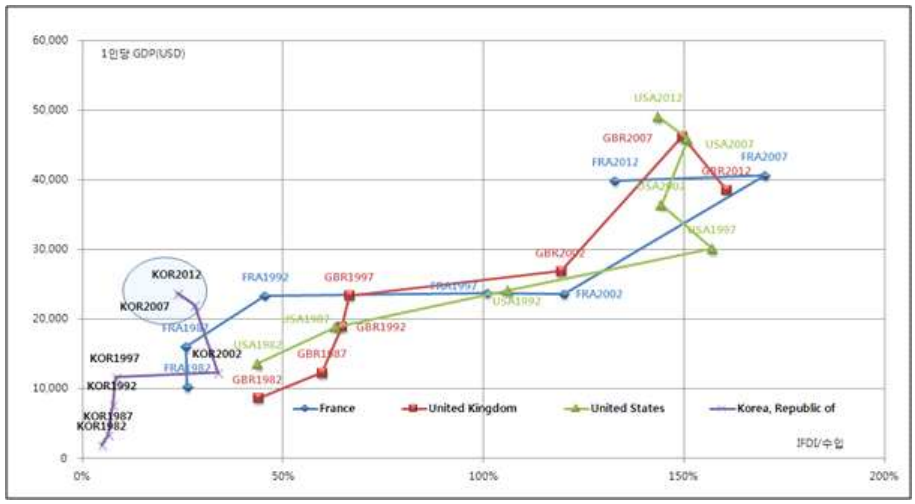
특히, 독일과 이태리의 경우 IFDI의 증가를 통해 2000년 대 중반 이후 3만불 이상의 1인당 GDP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수입 대비 IFDI 비중이 1인당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수입 대비 IFDI 수준은 독일과 이태리의 1990년대 상황과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보다 앞서나가는 국제화된 국가로 평가되며,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그림 14> 제조선진국의 IFDI/수입 비중과 1인당 GDP 간 동태적 분석
– 제조선진국형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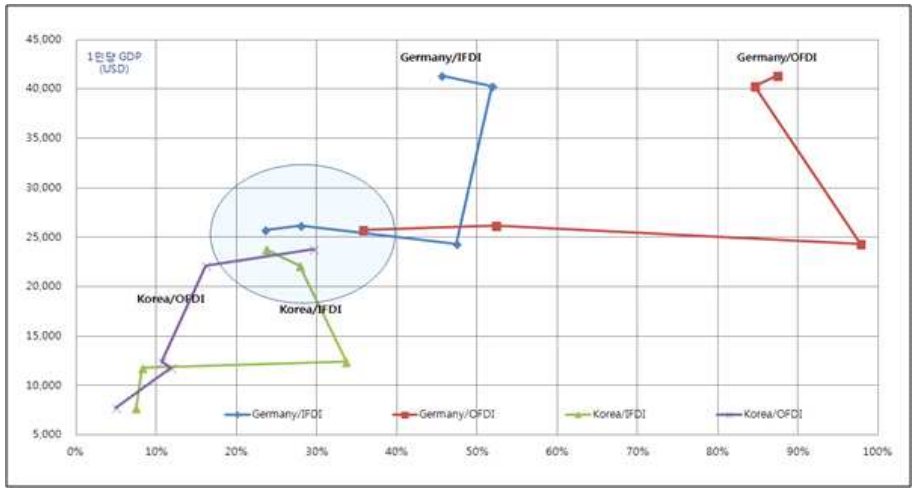
주요국의 IFDI/수입 비중과 1인당 GDP 간 서비스선진국형 경로를 살펴보면, 서비스선진국들의 IFDI/수입 비중과 1인당 GDP 수준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서비스업 투자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발전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는 서비스 선진국들의 수입 대비 IFDI 비중과 1인당 GDP 수준 간 동태적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서비스선진국형 발전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5> 서비스선진국의 IFDI/수입 비중과 1인당 GDP 간 동태적 분석
– 서비스선진국형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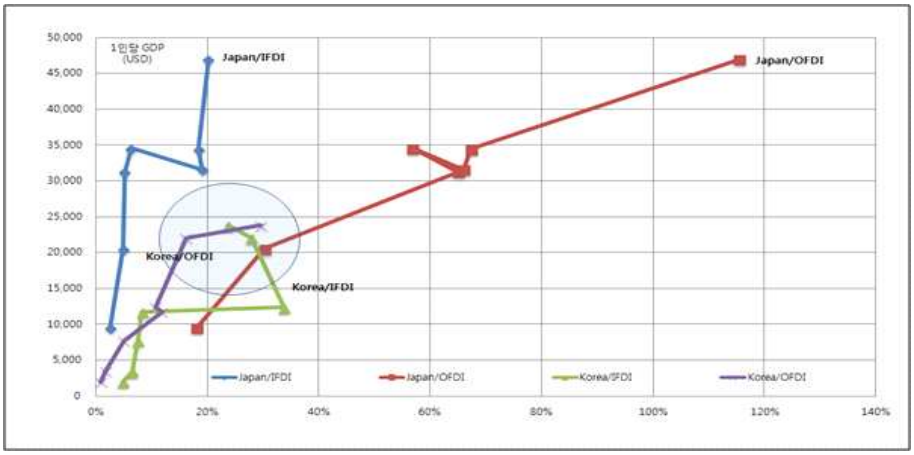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한국의 OFDI/수출 비중과 IFDI/수입 비중의 추이를 독일, 일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6-1>, <그림 16-2> 그리고 <그림 16-3>은 한국과 독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싱가포르 간 GVC 관점에서의 국제화와 1인당 GDP 수준 간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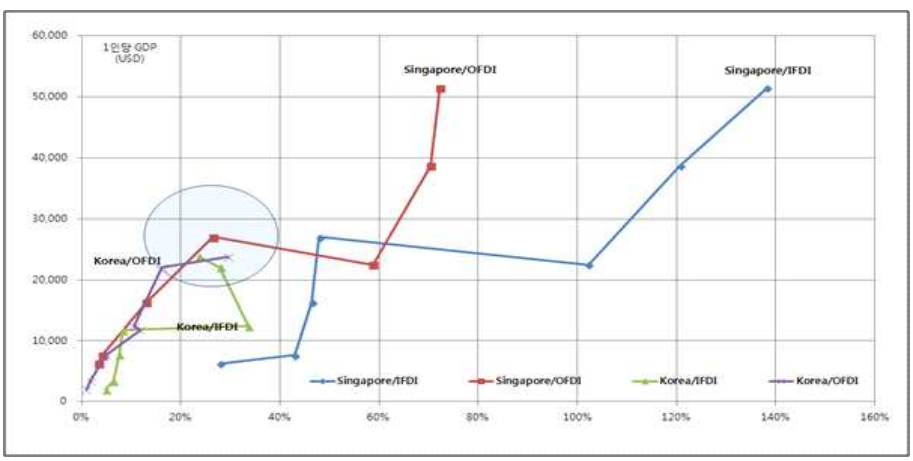
<그림 16-1> 한국과 독일 간 GVC 관점에서의 국제화와 1인당 GDP 수준



<그림 16-2> 한국과 일본 간 GVC 관점에서의 국제화와 1인당 GDP 수준



<그림 16-2> 한국과 싱가포르 간 GVC 관점에서의 국제화와 1인당 GDP 수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독일과의 비교분석 결과, 한국의 OFDI/수출 비중과 IFDI/수입 비중 모두 독일의 20년 전 위치로 분석되었다. 특히, OFDI가 더 많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비교분석에서는 OFDI/수출 비중 위주로 두 국가 간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FDI/수입 비중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OFDI/수출 비중 보다 IFDI/수입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보다 15-20년 가량 앞선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FDI와 무역을 중심으로 국제화 수준을 실증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FDI 수준을 GVC 관점에서 세계 주요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고 또한 한국 해외투자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화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해외투자 수준과 그에 따른 국내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과 FDI를 동시에 활용하는 GVC 전략 관점에서는 FDI 적정성 평가를 위해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과 비교된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 정도를 국제비교 한 결과, 한국이 무역위주의 국제화를 추구함으로써 무역과 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향후 한국기업들이 투자확대에 나설 경우, 그 투자의 이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GDP 상위 5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성을 실증분석 한 결과, 수출 대비 OFDI 비중과 1인당 GDP 수준 간 정(+)의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2년 기준 수출대비 OFDI 비중이 높은 상위 50개국 전체 GDP 총합은 약 66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1인당 GDP를 3만불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및 수출규모가 더 커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재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의 지역적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제조선진국형 발전 경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 무역과 FDI를 동시에 활용하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대비 IFDI비중과 1인당 GDP 간 관계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정(+)의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출대비 OFDI와 1인당 GDP 간 관계성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과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FDI의 이익은 OFDI 뿐만 아니라 국내로의 투자유치 즉, IFDI에서도 투자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인당 GDP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와 함께 국내로의 투자유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대비 OFDI 비중이 1인당 GDP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동태적 분석(시계열적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 등 모든 나라들이 수출대비 OFDI가 증가하면서 1인당 GDP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제조선진국

에 비해 현재 한국은 수출대비 OFDI 비중도 낮고 그에 따라 1인당 GDP 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현 수준은 20~30년 전의 이들 제조선진국의 수출대비 OFDI 규모와 1인당 GD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제조선진국의 경험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기업들의 OFDI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한국은 국내기업들의 OFDI 수준과 다국적기업의 IFDI 수준을 모두 확대할 필요가 있다. GVC 관점에서는 기업 가치사슬의 분할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며, 가치사슬의 국제적 분할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의 국내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저부가가치 영역의 단순조립공정은 생산요소가격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되 고부가가치 영역의 국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영역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영역에 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고부가가치 영역의 다국적기업의 입지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홍(2012.9.4), “삼성전자·현대차 고용현황 살펴보니 국내서 1명 뽑을 때 해외선 4명 채용,” 「조선일보」.

문휘창·박지민(2014),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Korean Business Review」, 제18권 제3호, pp.125–145.

박성배·복득규·임영모·정호성(2008),“글로벌 네트워크형 비즈니스모델의 확산”,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이은석·이정욱·박나연·김유신(2012),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이준호(2007),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학기술정책」, 제163권, pp.50–63.

이준호·최정일·이옥동(2014),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사례 및 지원과제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7호, pp.159–175.

최남석(2013),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현혜정·장용준·강준구·김혁황·박철형(2010),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0–02.

Lee, K. and M. Jung(2015), “Overseas factories, domestic employment, and technological hollowing out: a case study of Samsung’s mobile phone busines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51, No. 3, pp.461–475.

OECD·WTO·UNCTAD(2013),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for Trade, Investment, Development and Jobs,* Prepared for the G–20 Leaders Summit 2013.

OECD·WTO·WB(2014), *Global Value Chains: Challenges, Opportunite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Prepared for the G–20 Leaders Summit 2014

Oliver, C. and B. Kang(2012.4.26.), “Korea’s youth face shrinking jobs pool,” Financial Times.

UNCTAD(2013),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UnctadStatDB

Global Value Chains Perspective of Korea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and Policy Direction

Moo-Sup Jung
Young-Soo Yang
Dae-Yo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 based on GVC (Global Value Chain) perspective and to presentthe policy direction. From GVC perspective which comprehensively describes the world's increasing FDI and imports/exports phenomenon since the 2000s,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 is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rade. Therefore, the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OFDI, IFDI) is urgently need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50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Switzerland, Singapore, etc, showed that the leve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 is 20 to 30 years behind compared to those major countries. Therefore, exploiting the benefits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 the same time is needed to increase the level of GDP per capita.

<Key Words> Global Value Chain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Internationalization